

‘경험 풍부한 금융 말형’ P코로나 시대, 혁신 최적임자

**새 은행연합회장에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단독후보 추대... 27일 사원총회 빅테크 금융권 진입 대응 ‘우선 과제’ 금융당국-은행 관계회복 가교역할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독 후보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추대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빅테크와의 경쟁, 고객신뢰 확보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민(民)·관(官) 경험이 풍부한 김 회장이 최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열고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한다.

김 회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정책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했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다. 이번 인선에서는 김 회장이 현재 NH농협금융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은행권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필수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업계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3년간 NH농협 금융을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갖고 이끌었다는 것이 내·외부의 평가다. 김

회장은 취임 이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또 내실성과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협금융의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최우선 과제로는 빅테크의 금융권 진입 대응이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경쟁질서 확립과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금

융협의회를 출범했다. NH농협금융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간 관계회복을 위한 가교역할도 해야 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잇단 부실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갈등이 표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은행장에게도 동일한 방향의 징계를 내릴 경우 현직 은행장이 문책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 절차에 개입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판매절차 등을 고려한 은행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환과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

업에 대한 은행권 자율 배상도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10개은행으로 구성된 은행협의체에 피해기업 배상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논의를 이끌만한 은행이 나오지 않자 다른 은행도 명확하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의 관계나 고객 신뢰를 고려할 때 김 회장의 가교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금융당국과 조율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은 해당금액을 거래금액이 아니라 불완전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펀드 판매 수수료는 투자금의 1~2% 수준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 200억원이다. 이 경우 거래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감당하는 금액이 수익에 비해 과하게 책정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의 경우 각종 유예제도가 사라져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김 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銀, 미래형 혁신점포 오픈

영업점 직원 대면 수준의 화상상담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화상상담 시스템을 적용한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인 ‘디지털택트 브랜치’를 서소문 지점에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택트는 디지털과 컨택트(Contact)의 합성어다. 디지털택트 브랜치는 고객이 화상상담 창구에서 화상상담 전문 직원과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의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이다.

화상상담 부스 내에 대형 스크린과 화상상담용 카메라, 키패드, 손바닥 정맥 인식 장치, 신분증 및 인감 스캐너 등이 설치돼 있어 각종 상담 자료들을 보면서 실명확인부터 업무 완결까지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수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디지털택트 브랜치는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고객중심 영업 추진을 위해 기획됐다. 2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곳 어디에든 설치할 수



신한은행 디지털택트 브랜치 상담 모습.

있다.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 소속의 화상상담 전문 직원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신해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택트 브랜치를 통해 고객과 금융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서소문 지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소형점포 및 무인화점포 등 다양한 채널에서 디지털택트 브랜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능 업무의 범위도 현재 예적금 신규, 대출 상담에서 점차 넓혀 ‘시간과 장소, 업무를 불문하고 연결 가능한 고객 친화 채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銀, 마카롱택시 7000원 할인이벤트

마카롱택시앱서 결제시 최대 혜택

하나은행이 마카롱 택시요금 최대 7000원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케이에스티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는 ▲‘하나원큐’ 앱 신규 등록 손님 ▲마카롱 택시 기사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다음달 15일까지 새로운 ‘하나

원큐’ 앱 신규 등록 손님에게 마카롱 택시 2000원 할인쿠폰 및 마카롱 캐시 5000원을 제공한다. 손님은 마카롱택시 앱에서 요금 결제 시 최대 7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달 11일까지 개인택시 기사님이 마카롱 택시기사용 앱을 통해 매 출대금 입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변경할 경우 PG수수료를 3개월 면제하고 하나머니 1만머니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크로스비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안내

- 모집접수** 2020. 11. 17. ~
- 모집대상**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가능 (토달 3년 사용가능)
- 입주기업 지원사항**
 - ◆ 사무공간, 무료 제공, 회의실, 접견실, 복사기, 인터넷, 팩스 등 지원
 - ◆ 마케팅·경영지원(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등록 등 지원)
 - ◆ 경영, 법무, 세무, 노무, 특허 등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상담방법** 전화 후 센터방문 상담

문의처 크로스비즈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051-818-0211